

제1절 개관

민속문화는 흔히 한 나라의 원초적인 구심점을 형성하면서 전승되는 문화적 총체로 정의된다. 이 같은 민속문화는 민속놀이나 민속연극의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이 중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놀이는 본래 인간의 종교적 신앙행사의 한 부분으로 베풀어지던 예능적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농경시대의 사람들은 신에게 무사태평과 풍요를 기원하는 단계에서 신의(神意)를 탐지하고자 하거나 신을 즐겁게 하려고 신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재연코자 하는 행위들을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속놀이는 연중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으나, 특히 농경의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구현된다. 즉 정월보름날, 수릿날, 백종날, 한가윗날 등에 베풀어지는 놀이의 양상은 그 규모 면에서도 매우 성대하며 이른 봄의 파종의례, 봄·여름의 성장의례, 가을의 수확의례에 따르는 놀이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왔음을 엿볼 수 있다. 민속놀이의 요소로는 우선 오락성을 들 수 있다. 곧 민속놀이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 놀이는 참여자 모두가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될 때 재미있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민속놀이는 겨루기 형식을 지니고 있다. 겨루기 형식은 가장 적극적인 재미의 요소이다. 놀이는 흥을 북돋우며 신명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며, 대동성을 획득하게 하고 마침내는 혼란의 지경 속에서도 내적 질서를 배태시킨다. 민속놀이의 종류 및 성격은 대개 명절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며, 놀이하는 주체나 집단의 성별에 따라, 또 놀이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울진지역의 민속놀이와 관련한 옛 기록이나 문헌은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민속놀이의 사례나 실제 자료는 1989년도에 울진군과 안동대학교가 함께 실시한 「울진군 문화재 지표 조사」, 『울진군지』, 『울진의 세시풍속과 놀이』 I · II · III을 토대로 기술한다.

제2절 울진지역의 대동놀이

1. 줄당기기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줄당기기

울진의 줄당기기는 한국 줄당기기의 보편적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해안이라는 지리 생

태적 환경과 거기에 적응하는 생업 활동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지역성을 포함하고 있다.⁹¹ 예컨대 내륙지역인 평해읍 월송리의 줄당기기가 보편적 맥락 위에 있다면 해안지역인 직산1리의 줄당기기와 기줄당기기는 보다 강한 지역성을 보여준다.

월송리의 줄당기기에서 양편은 용과 범으로 상징화되어 있고, 양편의 싸움이 용과 범의 싸움으로 인식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한 신랑과 신부가 각기 용줄과 범줄에 올라탔으며, 양편 줄의 결합을 신랑 신부의 첫날밤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용과 범의 대립 구도를 축으로, ‘암줄-용’의 주술종교적 고리에 가장한 신부가 결합함으로써 여성성을 더 분명하게 표상하고, 반대편은 ‘숫줄-범’의 고리에 가장한 신랑이 결합함으로써 남성을 더 분명하게 표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룩된 ‘암줄-용-신부’의 주술종교적 연쇄의 고리와 ‘숫줄-범-신랑’의 주술종교적 연쇄의 고리는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양향을 이루며 이 양향 대립은 더욱 분명하게 양편 줄의 결합이 풍요다산을 초치(招致)하는 주술종교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했다.

죽변면 후정리의 줄당기기는 줄과 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지역에서는 줄을 용이라 하고, 줄머리를 용머리, 줄목을 용목, 벌림줄을 용발, 줄꼬리를 용꼬리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줄을 당기기 전에 양편이 줄 위에 사람을 태우고 공중에서 격돌하는 앞놀이를 용머리싸움이라고 부르며 항상 땅리를 튼 채로 줄을 보관한다. 줄당기기에서 줄은 용사(龍蛇)의 상징으로 인식되지만, 양자의 관련성이 부분적이거나 피상적인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비해 후정리에서는 줄과 용의 관계가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드러나 줄당기기와 용사신앙의 관련성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⁹²

울진은 쌍줄을 당긴 지역이다. 근자에 외줄을 당기는 지역도 있지만, 이는 경비와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쌍줄을 당길 수 없게 되자 약식화한 것이다.⁹³ 울진지역 줄의 일반적 생김새는 암줄과 수줄이 따로 있고, 각 줄은 하나의 몸줄에 결줄이 달린 지네 모양의 줄이다. 그러나 직산1리 저장마을의 줄은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암줄의 고는 줄을 반으로 접어서 겹쳐지는 부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줄의 끝을 오므려서 만들었다. 그리고 수줄은 아예 고를 만들지 않고 끝에 ‘곳나무’를 달아 그것을 암고에 끼움으로서 결합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모양새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제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독특한 것임이 틀림없다.

91. 아래의 내용은 ‘한양명, 1998,『몇 사례를 통해 본 울진 줄당기기의 지역성』『민속연구』8,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149~154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92. 한양명, 1994,『줄당기기의 주술종교적 기능체계』『민속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김선풍 외, 1996,『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360~365쪽, 참조.

93. 울진의 기성면 기성리, 사동2리, 구산1리 및 울진과 접해 있는 삼척과 영덕, 그리고 포항의 다수 지역에서는 어업에 사용하는 로프로 외줄을 만들어 당기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보다 후대에 나타난 것이다[김호태, 1995,『대보름 민속놀이의 제의성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8~49쪽 참조].

2) 기줄당기기

해안지역의 지리 생태적 성격을 반영하는 편가름의 방식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여성들에 의해서 놀아진 기줄당기기이다.⁹⁴ 기줄당기기는 두 명의 여성이 보통 아이를 업을 때 쓰는 광목 띠를 연결하여 만든 하나의 줄을 각기 목에 걸고 사타구니 사이로 빠지게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어나가 상대방을 끌어오는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기’는 바다의 갑각류 생물인 게의 방언이다. 울진지역은 대개의 집산지이다. 이 지역에서 게는 붉은색과 날카로운 다리 때문에 벽사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기줄당기기는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놀이화한 것으로서, 생생력(生生力)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 여성들에 의해 해변의 ‘불가[백사장]’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지리 생태적 환경 및 생업과 깊이 연관된 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여성축제의 새로운 발견-화전놀이와 외서리

1) 농촌지역의 화전놀이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집단으로 삶터인 마을을 떠나서 하룻낮 동안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절식을 즐기는 행사로 유일하게 주목받은 것은 화전놀이였다. 화전놀이는 참꽃이 만개하는 삼진날쯤에 주로 시집살이하는 며느리들이 산천경개가 수려한 곳을 찾아가서 화전을 부쳐 먹으며 노는 여성 해방의 봄축제로서⁹⁵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화전놀이에 관한 관심은 주로 야외에서 벌이는 여성의 집단놀이 또는 여성들의 축제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생업과의 관련 속에서 이뤄진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화전놀이를 벌인 여성들이 대개 농촌과 어촌의 며느리이고 이들이 농업과 어업의 주역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력과 어업력을 바탕으로 화전놀이의 여가적 성격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전놀이를 연행하는 삼월 초순은 농촌의 경우 보리밭매기와 밀밭매기를 하고 논갈이와 보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때이지만 농번기보다 노동의 강도가 약한 준농번기에 해당했다.⁹⁶ 여성들은 주로 밭농사를 담당했는데, 이 시기에 이뤄지는 밭매기는 연일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짬을 내서 화전놀이를 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94. ‘기줄’이라는 명칭은 삼척, 동래 등의 대규모 쌍줄에도 사용된다. 이를 지역의 쌍줄은 몸줄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複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울진 여성들의 ‘기줄’이 영금영금 기는 게의 속성에 근거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삼척과 동래의 ‘기줄’은 많은 다리를 가진 게의 생김새에 착안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명명 방식은 하나의 몸줄에 많은 결줄이 붙어 있는 쌍줄을 통상 ‘지네줄’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95. 화전놀이의 진행 과정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축제성에 대해서는 ‘한양명, 2003,『화전놀이의 축제성과 문화적 의미』『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를 참조하기 바람.

96. 배영동, 2001, 「농업생산형태 변화에 따른 草宴의 소멸과 대체의례 등장—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의 사례—」『역사민속학』22, 한국역사민속학회, 133쪽 참조.

(1) 갈면리의 화전놀이

이 마을에서는 주로 삼진날 무렵에 화전놀이를 다녔다. 화전놀이는 망양정과 백암산성, 연호정 등과 같이 원거리로 가기도 했고, 마을 위쪽에 있는 시냇가처럼 가까운 곳으로도 갔다. 화전놀이를 주도한 이들은 삼십 대 후반에서 사십 대 초반의 며느리들이었다. 화전놀이 구상이 모이면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도록 했다. 화전놀이를 가려면 시어른과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쉽게 허락해주지만, 시어머니가 엄하거나 깐깐한 남편을 둔 사람들은 허락받기가 어려워서 화전놀이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갓난아이가 있는 여성은, 아이를 맡길만한 사정이 안 되면 아이를 업고 가야만 했다. 집안일을 마친 여성들은, 경쟁하듯이 고운 한복을 차려 입고 마을을 나섰다. 화전놀이의 백미는 노치였다. 여성들은 노치를 부치기 위해 참꽃을 찾아 돌아다녔다. 참꽃은 주변에 지천이었지만 색이 진하고 잎이 넓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다. 참꽃을 따오면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노치를 부쳤다. 묽은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올린 뒤에 어느 정도 익으면 꽃술을 떼어낸 참꽃잎을 올려서 모양을 냈다. 처음 부친 노치는 산신을 의식해서 ‘고시례[고수례]’를 했다. 그다음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먼저 노치를 대접한 뒤 함께 나눠 먹었다. 노치를 먹고 나면 주변에서 산나물을 채취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여성들은 몰래 가져온 막걸리를 한 잔씩 마셔가며 놀이판을 벌였다. 화전가를 부르고 수건돌리기나 이름 대기 등을 했으며 걸린 사람은 벌칙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다.

2) 울진 해촌의 외서리

농촌지역에서는 봄철에 화전놀이를 갈 수 있지만 어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아직 동력선을 이용한 어업이 정착되지 않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촌 주민들의 생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 것은 미역이었다. 화전놀이를 가는 삼월 초순 무렵은 미역의 채취와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미역짬을 배당받은 가정의 며느리들은 가정경제의 주요 수입원인 미역 관련 노동을 뒤로 하고 하루를 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어촌의 여성들은 생업의 특성상 봄철에 화전놀이를 갈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외서리’다. 외서리는 이제까지 이뤄진 세시풍속과 놀이 관련 조사 연구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여성들의 집단적 놀이 활동 또는 축제로서 울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서리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이나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을 뜻하지만, 울진지역에서는 물물교환이나 현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과일을 구매하는 것도 “서리한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외서리는 참외를 뜻하는 ‘외’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서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울진지역의 여성들은 논의 김매기와

자신들이 담당하는 밭매기, 특히 조밭매기가 끝나는 유월 말부터 칠월 중에 날을 잡아 인근 지역의 과일밭으로 가서 과일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1) 봉평1리의 외서리

미역채취를 마친 뒤 유월이나 칠월 중 일이 없는 한가한 때 날을 잡아서 반드시 외서리를 갔다. 외서리는 젊은 부녀자들이 또래끼리 어울려서 갔으며, 과수원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는 없었다. 멀리 갈 때 북면 하당리 근처까지 외서리를 간 적도 있었다. 외서리를 가기 위해서는 미역채취와 건조, 판매를 모두 끝내야만 했다. 당시 마을에서 생산하던 미역은 ‘장각’으로서 상품 가치가 높았다.⁹⁷ 마을 앞에 펼쳐져 있던 ‘목님에불’은 널어놓은 미역 때문에 모래사장이 온통 새까맣게 보일 정도였다. 장각이나 중각, 소각으로도 만들지 못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역 자투리들은 따로 모아서 말려 두었다가 아이들이나 며느리들이 긴요하게 사용했다. 당시는 미역이 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쌀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다. 미역 자투리를 가지고 외서리를 가면, 그걸로 과일을 실컷 사 먹고 집에 가지고 갈 것도 한 보따리씩 챙겨 둘 수 있었다. 과일을 사면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과일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수건돌리기 등의 놀이를 한 다음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2) 호월1리의 외서리

말복 무렵에는 며느리들이 외서리를 갔다. 외서리는 밭매기를 끝낸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즐거운 휴가였다. 여성들은 쌀과 함께 개인당 백 원 정도의 돈을 냈다. 이 돈으로 과일을 사 먹었고, 더러는 술을 사 먹기도 했다. 외서리를 가는 날 아침에 여성들은 복장을 곱게 차리고 삼삼오오 모였다. 목적지까지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늦어도 여덟 시쯤 출발했다. 부지런히 걸으면 점심시간쯤 목적지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성들은 술과 가래떡, 그리고 근처에서 사온 수박을 먹으면서 놀았다. 수건돌리기와 이를 대기 등을 하다가 신이 나면 이어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3. 동달임 ; 어민들의 작은 축제

어민들은 보통 전반기 어선어업이 마무리되는 유월과 후반기 어업이 마무리되는 선달에 동달임을 했다. 동달임은 겨울을 의미하는 ‘동(冬)’과 복달임, 꽃달임처럼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의 ‘달임’이 합쳐진 말이다. 보통 동달임은 말 그대로 일 년의 어로

97. 말린 미역은 크기에 따라 장각, 중각, 소각으로 구분한다.

활동을 결산하면서 겨울에 벌였지만, 어로 기술의 발달로 연중 어선어업이 가능해지고 임금제도가 바뀌면서 일 년에 두 번씩 열게 되었다.

동달임은 선주가 주관했다. 동달임을 하는 날이 정해지면 선주 집에서는 가급적 선원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육류와 바닷고기, 그리고 부침개와 떡 등을 장만하고 술도 준비했다. 동달임하는 날 아침이 되면 선주와 선장이 성황당을 찾아가서 주과포를 차려놓고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면서 풍어와 해상안전을 기원한 다음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면 먼저 지난 조업의 결과를 정산해 추가 소득을 분배하면서 선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다음 새로운 조업을 위해서 선원 계약을 체결했다.

동달임은 같은 배를 타는 어민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지난 조업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조업의 시작을 축하하는 동시에 성황신의 가피 아래 풍어를 기약하는 어민들의 ‘작은 축제’였다.

1) 사동2리의 동달임

상반기 조업이 끝나는 유월과 하반기 조업이 끝나는 설달에 날을 잡아 조업의 결과를 정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모임을 하는데, 이를 “동드름[동달임]” 한다.”라고 했다. 이월부터 오월까지 조업 기간에 잡는 고기를 ‘봄고기’라 하고 칠월부터 십일월까지 잡는 고기를 ‘가을고기’라고 했다. 이 밖의 기간은 조류가 맞지 않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었다. 동달임은 봄고기와 가을고기를 잡은 후에 하는 것이었다. 동달임을 하기며 칠 전부터 선주는 선원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듬해에도 조업을 함께 할 것인지 물었다. 이때 선원은 상반기에만 할 것인지 일 년 내내 할 것인지 결정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년 동안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선원 모집이 끝나면 날을 정해 동달임을 했다. 당일 아침이 되면 선주와 선장이 해신당을 찾아가서 어물과 주과포를 차린 다음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면서 풍어를 기원했다. 오후 무렵이 되면 그동안 함께 작업했던 선원과 이듬해 함께 조업할 선원을 모아 놓고 동달임을 했다. 음식은 주로 어탕과 어적, 막걸리 등이었으며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웃 주민들도 불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2) 죽변3리의 동달임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선주와 선원들이 계약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동두루미’, ‘동달임’이라 했다. 선주는 설달부터 일 년간 함께 일할 선원을 필요한 인원만큼 모집했다. 함께 일할 선원이 모이면 정월 안에 조용한 날을 잡아서 임금과 노동 조건 등을 정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이것을 “동두루미 먹는다.”라고 했다. 동달임이 있는 날에는 선주의 부인이 음식을 장만해서 선원들을 푸짐하게 대접했다. 당시에는 소고기가 귀했음에도 소고깃국을 끓이고 좋은 어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이날 찜을 해서 주었다. 그 밖에 노치를 굽고 나물

무침, 김치 등을 반찬으로 내놨다. 동달임을 하는 날에는 가까운 이웃들도 함께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다.

4. 놀쌈 ; 어촌의 특성을 드러내는 배 경주

놀싸움은 뱃놀이 경주 또는 뗏목타기로 불리며 울진지역의 죽변면 죽변리, 기성면 기성리, 후포면 후포리, 울진읍 연지리 일대에서 1930~1940년대까지 전승되어 온 해촌의 대동 민속놀이이다. 죽변리와 후포리의 놀싸움은 외국의 사례처럼 세시풍속의 의례적 놀이라기보다는 마을 축제(祝祭)적 의미가 담긴 연중행사의 하나로 마을 공동체 단위의 겨루기형 놀이로 여겨진다.⁹⁸ 놀싸움⁹⁹은 일정한 시기가 없이 어업조합[현 수산업협동조합] 측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축제 형식으로 치러졌다.

죽변과 후포, 기성지역의 ‘놀쌈’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놀쌈은 놀과 싸움의 합성어로서 ‘놀’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나운 큰 물결”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파생어로는 ‘놀사공’이 있는데, “사나운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사공”, 즉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¹⁰⁰ 이런 용례로 보아 놀쌈은 ‘배를 타고 물결을 헤쳐가면서 하는 겨루기’ 또는 ‘놀사공, 즉 어부들이 배를 타고 하는 겨루기’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제보와 자료에 따르면 죽변의 놀쌈은 1950년대까지 전승되었고, 후포의 놀쌈은 1960년대까지 전승되었으며, 기성의 놀쌈은 1940년대 초반까지 전승되었다고 한다.

1) 죽변의 놀쌈[1950년대]

1950년대 후반까지 죽변항 앞바다에서 ‘배 경주’가 열렸다. 이 경주를 ‘놀쌈’이라고도 불렀다. 배 경주는 해방 후에 크게 한 번 열렸고, 한국전쟁 발발로 휴전 후까지 열리지 않다가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¹⁰¹ 주최는 ‘죽변어업조합’으로서 늦봄이나 초여름에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는 조합에 속한 어촌계 단위로 이뤄졌다. 보통 대여섯 마을이 참가하고 선원은 한 마을당 다섯 명이었다. 대회에 사용하는 배는 ‘야거리[돛단배]’로 한정했다. 야거리는 ‘돛배’나 ‘야돛대’라고도 불렀다.¹⁰² 크기는 길이 5~6m, 폭 2m 정도였다. 돛

98. 을진군·안동대학교, 1991, 『울진의 문화재』, 77쪽

99. 놀싸움은 ‘한양명 외, 2012, 『울진의 세시풍속과 놀이』,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울진문화원’에서 자세하게 조사, 발표되었다. 이후 이 연구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남효선 시인이 울진워터피아축제와 울진대개축제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복원, 시연하였다.

100. 박용수, 2006, 『겨레말 용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01. 마지막 놀쌈에 참가한 최의봉(남, 82세)은 “해방되고 나서는 확실히 했지. 죽변항에서 했는데 내가 30년생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스물여섯인 가 일곱인가 됐을 땐데, 내가 제일 어렸어. 그때 참가하고는 참가도 안 했지만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요.”라고 제보했다.

102. 이 마을에서 운용한 풍선(風船)은 크게 ‘야거리[돛단배]’와 ‘당두리’로 나누어진다. 야거리는 소형어선으로서 연근해어업이나 미역채취 등의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사용했는데, 어선의 크기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돛대를 달았다. 당두리는 야거리보다 먼 곳까지 나갈 수 있는 대형어선으로서 큰 돛대 두 개를 설치해 운용했다.

은 광목에 천연 염색해서 만든 것으로 ‘황포돛대’라고 불렸다. 돛이 완성되면 돛대에 걸고 중간중간 철사를 감아서 고정했다. 한편 배 경주에 참가할 때는 돛대에 그림을 그리거나 오색 기를 배 곳곳에 다는 등, 배를 치장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배 경주는 선원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했다. 승선한 다섯 명 모두가 노를 저었지만, 선원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달랐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는 배의 후미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사공[선장]’이라고 불렀다. 사공은 총책임자로서 배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노를 저었다. 나머지 선원은 배의 앞부분에 두 명, 뒷부분에 두 명이 양쪽으로 앉아서 노를 저었다. 이때 뒷부분에서 노를 짓는 두 사람을 ‘한참몰이’라고 했다. 배의 추진력이 이들에게 달려 있어서 체력이 좋은 건장한 청년이 맡았다. 한편 앞부분에서 노를 짓는 사람은 ‘옆참몰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노를 짓는 데 힘을 보태는 한편 사공의 지시를 받아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도 했다. 따라서 ‘옆참몰이’는 보통 승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았다.

배 경주는 출발점에서부터 목표지점까지 갔다가 먼저 돌아오는 편이 이겼다. 출발점은 보통 해안선이었으며, 목표지점은 해안선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부표를 띄워서 표시했다.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던 배들은 출발신호가 들리면 ‘산대’로 불리는 ‘상앗대’로 바닥의 모래를 찍어 배를 물에 띄우고, 물에 뜨면 노를 세차게 저었다.

배 경주가 있는 날이면 주민들이 모두 나와 풍물을 동원해 자기 마을의 배를 응원하며 즐겼다. 조합에서는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 주민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배 경주가 끝난 뒤까지 풍물판을 벌였다.

2) 후포의 놀쌈 : 봉산1리의 사례[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후포어업조합[현 후포수산업협동조합] 산하의 마을들이 모여 ‘배 경주’를 했다. 배 경주는 후포에서 별신굿이 열리는 해에 개최되었다. 후포리에서 별신굿이 열리면 각 마을 어촌계에서는 선수단을 구성해 후포항에서 배 경주를 벌였다. 배 경주가 열리는 날에는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배 경주에는 ‘야거리’나 ‘돛배’, ‘야돛대’라 부르는 돛을 단 무동력 목선을 이용했다. 배의 규모는 길이가 약 5~6m, 폭이 2m 정도였으며 평소에는 짬에서 미역을 채취하거나 연근해에서 물고기를 낚을 때 주로 사용했다. 경기에 사용되는 배는 ‘알배’라고 부르기도 했다. 배에는 보통 다섯 명이 탔다. 배 후미에 자리한 사공이 노를 잘 저어야 옳은 방향으로 빨리 나갈 수 있었다. 사공이 잡은 노가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키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사공으로 배치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배의 양쪽으로 나누어 선수 쪽에 두 명, 선수와 선미 사이에 두 명이 앉아 노를 저었다. 선수 쪽에 앉은 사람들은 사공의 지시에 따라 배의 방향을 전환했다.

배들은 출발선에 정렬해 있다가 총소리와 함께 동시에 출발하여 목표물을 돌았다. 목표

물은 주로 부표를 띠워 표시했으며, 출발선으로 먼저 돌아온 팀이 승리했다. 주민들은 술과 음식을 먹고 풍물을 치며 배 경주를 관람했다. 선수들이 경주를 마치고 돌아오면 승패와 상관없이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고 풍물을 치며 놀았다.

3) 기성의 놀쌈

1940년대 초중반까지 기성리 앞바다에서, 기성어업조합이 주관하는 배 경주가 열렸다. 배 경주는 매년 유월에서 칠월 중에 날을 잡아 개최했다. 배 경주가 열리는 날이면 조합 관할의 각 마을에서 목선을 가지고 나와 경주에 참가했다. 특히 기성리는 어업이 성하고 어선도 많았던 여러 대의 배가 참가했다. 경주에 참가한 배는 노가 다섯 개 달린 목선으로 둑단배라고 불렸다. 이 배는 평상시 연근해어업에 사용하는데, 다섯 개의 노는 선미에 한 개, 배의 좌우에 각각 두 개씩 설치했다. 선미의 노는 배의 속력과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경험 많은 사람이 맡았다. 이 사람을 ‘사공’이라고 불렀다. 노 젓는 사람은 노마다 한 명씩 붙는 것이 보통이지만,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명이 달라붙기도 했다. 그래서 배에 타는 인원도 유동적이었다. 해마다 일고여덟 대의 배가 참가해 경주를 벌였다. 경주 방법은, 참가하는 배들이 해안에 일렬로 서 있다가 신호를 주면 노를 저어 각 배에 배정된 부표를 돌아오는 것이었다. 경주가 벌어지는 동안 주민들은 같은 마을 사람이 탄 배를 열렬히 응원했다. 경주가 끝나면 순위와 상관없이 풍물을 치면서 놀았다. 우승 상품은 어협에서 마련한 광목 한 필이었다.

제3절 어른들 놀이

1. 남성놀이

(1) 골패

골패는 주로 성인 남성들 사이에 즐겨 성행하던 도박형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골패는 납작하고 작은 네모진 바탕에 상이나 장을 붙이고 앞면에 여러 가지 수효를 나타내는 크고 작은 구멍을 새긴 것으로 모두 3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패 32쪽의 이름과 쪽수는 다음과 같다. 오륙 2쪽, 통소 2쪽, 쥐코(鼻) 1쪽, 진아 2쪽, 백사 1쪽, 백오 2쪽, 백륙 2쪽, 직흉 2쪽, 사오 1쪽, 사육 2쪽, 주륙 2쪽, 소삼 2쪽, 아삼 1쪽, 장삼 2쪽, 삼사 1쪽, 삼오 1쪽, 삼육 1쪽, 준오(準五) 2쪽, 어사(御四) 2쪽, 관이(冠二) 2쪽, 아육 1쪽이다. 골패놀이는 앞의 32쪽으로 모두 223점을 만드는 놀이로 대개 2~4명이 즐긴다. 놀이 방법에는 ‘꼬리붙이기포(飽)’, ‘여시골’, ‘여시’, ‘쩍쩍이’ 등이 있다.